

한국지반공학회 기술위원회 설치 경위 보고

김 수 일*

한국지반공학회에서는 그간 이사회등에서의 토론을 통하여 지반공학회 산하기구로 기술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 지대함을 공동인식하고 1991년 5월 이사회에서 회원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설치하기로 결의한 후 설문조사 및 회원모집을 실시하여 9개의 기술위원회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본 고에서는 기술위원회의 설치목적, 운영방법, 설치경위 및 운영현황등을 지면을 통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1. 기술위원회 설치목적 및 운영방법

한국지반공학회 산하 기술위원회는 날로 다양화, 세분화되고 있는 학문의 발전추세에 발맞추어 지반공학분야중 특정분야에 관심이 있는 회원들이 모여 상호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소규모의 발표회 및 토론회를 통하여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며, 지속적으로 심도있는 연구개발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고 국제적인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학회차원에서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기술위원회는 지반공학분야중 특정분야에 관심이 있는 회원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자발적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첫회에 한하여 몇 위원회의 명칭

을 나열하고 회원들의 희망을 물어 희망자가 20인 이상인 경우 그 설치여부를 이사회에서 결정토록 하였다. 기술위원회는 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두며, 이들은 해당기술 위원회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호선하도록 되어 있다.

기술위원회의 활동범위로는

- 1) 분기별 1회 이상 정보교환 및 친목을 위한 정기모임
- 2) 년1회 이상 세미나 및 발표회 개최
- 3) 강습회 개최
- 4) 독자적인 연구 프로젝트 개발
- 5) 학회의외 중요 연구 프로젝트 수행 등을 들 수 있으며 기술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학회에서는
 - 1) 중요 연구 프로젝트의 수행을 관련 기술 위원회에 위촉
 - 2) Proceeding 발간 협조
 - 3) 운영비 보조를 포함한 행정협조 등의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다. 기술위원회는 일단 설치되면 3년간 존속하며 설치 3년 후 그 위원회의 업적을 이사회에서 심사하여 계속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 정회원,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교수, 당학회 연구담당이사

2. 기술위원회 설치경위

1년 이상 그 설치 여부, 설치 시기 등을 논의해 온 기술위원회는 1991년 6월 기술위원회 설치에 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회원들에게 발송함으로써 본격적인 설치가 추진 되었다. 이 공문에는 전 절에 언급된 내용들을 골격으로 하는 「한국지반공학회 기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법」을 첨부하여 기술위원회의 설립 취지 및 목적을 밝혔으며, 또한 「한국지반공학회 기술위원회 설치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설치를 희망하는 위원회와 기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법에 관한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였다. 기술위원회의 명칭으로는 회원들간에 설치를 추진하고 있던 정보화시공 및 토목섬유 위원회와 ISSMFE TECHNICAL COMMITTEES의 26개 위원회를 나열하였으며 회원 1인당 가입할 수 있는 위원회는 두개까지로 제한하였다.

회원 51명으로부터 회신된 설치 희망 기술위원회의 통계분석자료로부터 10개의 기술위원회를 설치하기로 1991년 9월 이사회에서 결의하였다. 10개의 기술위원회 명칭과 그 활동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마이크로터널 위원회 : 구경이 1.0m 미만인 암반 및 토사터널의 거동과 관계되는 연구 수행
 - 2) 말뚝기초 위원회 : 말뚝의 거동과 관계되는 연구 수행
 - 3) 산사태 위원회 : 토사 및 암반사면을 포함한 산사태에 관한 연구 수행
 - 4) 연약지반처리 위원회 : 연약지반처리와 관계되는 연구 수행
 - 5) 정보화시공 위원회 : 지반거동의 계측, 분석 및 예측과 관계되는 연구 수행
 - 6) 준설·매립 위원회 : 준설과 매립에 관계된 연구 수행
 - 7) 지반진동 위원회 : 진동 및 지진에 의한 지반거동과 연관되는 연구 수행
 - 8) 터널 위원회 : 구경이 1.0m 이상인 암반 및 토사터널의 거동과 관계되는 연구 수행
 - 9) 토목섬유 위원회 : 토목섬유를 지반에 사용하는 문제와 관련된 연구 수행
 - 10) 지반굴착 위원회 : 개착식으로 지반을 굴착하는 방법과 연관된 연구 수행
- 위에서 열거한 10개 위원회의 회원모집을 실시한 결과 1991년 12월 이사회 전까지 166

〈表〉 기술위원회 발기회의 결과

번호	위원회명	회원수	위원장	간사	운영위원	발기회의 일자 및 장소
1	말뚝기초 위원회	33	박용원	이명환		'92. 3. 12, 학회 회의실
2	사면안정 위원회	39	백영식	홍원표		'92. 3. 16, "
3	연약지반처리 위원회	76	천병식	채영수	김주범, 김승렬, 김영남, 김호일, 남순성, 도덕현, 심재구, 이문수, 정덕교, 최중근	'92. 3. 20, "
4	정보화 시공 위원회	38	김영남	주재건	김학문, 남순성, 구호본, 송정락	'92. 3. 13, "
5	준설·매립 위원회	29	김수삼	유건선	장연수, 이송, 안상로	'92. 3. 13, "
6	지반진동 위원회	31	강병희	박종관		'92. 3. 16, "
7	터널 위원회	58	정형식	손준익		'92. 3. 2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8	토목섬유 위원회	27	심재범	조삼덕	이상호, 최윤화, 윤운모, 임재식	'92. 3. 18, 학회 회의실
9	토사지반굴착 위원회	43	이종규	김학문		'92. 3. 19, "

명의 회원이 9개의 기술위원회에 가입신청을 하였다. 10개 위원회 중 마이크로터널 위원회는 대형 연구 프로젝트와 연관되어 회원들의 의견보다는 이사회에 결정으로 포함된 위원회였으나 차후의 이사회에서 터널위원회로 통합되었고, 산사태 위원회의 명칭도 사면안정 위원회로 변경되었다.

9개 기술위원회의 태동을 준비하기 위한 간사를 1991년 12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1992년 3월 중 모든 기술위원회의 발기회의를 거쳐 위원장과 간사를 새로 선임하고 4개 위원회에서는 각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위원도 두기로 하였다. 기술위원회 발기회의 결과 선임된 위원장과 간사의 명단을 포함한 상세한 자료는 앞의 표와 같다.

3. 결 언

1992년 3월의 각 기술위원회별 발기회의 이

후 활발한 위원회 활동들이 시작되고 있다. 연약지반처리 위원회와 터널 위원회에서는 1992년 5월 21일과 6월 1일에 각각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연약지반처리 위원회에서는 독자적으로 News letter를 발간하고 있다. 본 학회는 앞으로 학술발표회의 주제들을 특정 기술위원회와 관련지어 결정하고 논문도 해당기술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작성토록 함으로써 학문발전을 선도하는 기술위원회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의 첫 시도로 1992년도 가을 학술발표회는 준설·매립위원회와 연약지반처리 위원회가 관련된 준설·매립·인공섬을 주제로 정하고 두 기술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고 있다. 본 학회 창립 이래 가장 발전적인 시도로 평가되는 기술위원회의 설치에 회원제위의 전폭적인 지지와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